

도이칠란드어기능동사구의 명사적성분과 동사적성분에 대한 분석

최 승 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같은 말도 성격과 정황에 따라 여러가지로 쓰이며 말투와 말솜씨에 따라서도 서로 다르게 들린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5권 224페이지)

외국어학습에서는 여러가지 표현형식들과 그 구성요소들이 가지고있는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해당 정황에 따르는 적합한 표현들을 선택하여 리용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현대도이칠란드어에서 기능동사구는 동사와 마찬가지로 과정이나 상태를 나타낼수 있기때문에 단어결합의 한 형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능동사구를 자유로운 단어결합과 같은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기능동사구를 이루는 개별적인 구성요소들은 자유로운 단어결합에서와는 달리 문장론적인 특성이나 의미론적인 특성을 대부분 상실하고 하나의 의미적단위로 결합되면서 술어로 쓰인다. 그러므로 기능동사구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자면 그것을 이루는 구성요소들에 대한 리해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

이 글에서는 도이칠란드어기능동사구를 이루는 기본구성요소들인 명사적성분과 동사적성분인 기능동사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먼저 기능동사구를 이루는 기본구성요소의 하나인 명사적성분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기능동사구의 명사적성분은 명사화과정을 통하여 동사에서 파생되어나온 추상명사이며 동작명사이다. 도이칠란드어에서는 구체명사와 추상명사사이에 언어적구별이 없는것처럼 동작명사와 결과명사사이에도 형식적인 구별은 없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동작명사가 미정형과 같은 기능을 가지며 결과명사는 분사와 일치한다. 같은 명사가 하나의 문맥속에서 추상명사나 구체명사로 쓰이기도 한다.

례: Ein Bau dauerte 6 Monate und dann stand der fertige Bau da.

(그 건물은 6달만에 완공되였다.)

우의 실례문장에서 첫번째 Bau(건축)는 bauen을 나타내는 동작명사이다. 두번째로 쓰인 명사 Bau(건축물)는 구체적인 건물(das Gebaute)을 나타내기때문에 결과명사이다. 일반적으로 결과명사도 기능동사구에서 쓰일 때에는 동작명사가 된다.

례: zur Sprache kommen (화제가 되다)

zur Rede stellen (대답을 요구하다)

모든 동작명사가 동사에서 파생되어 생겨난것은 아니다.

실례로 zur Ruhe kommen(진정하다)에서 Ruhe를 동작명사라고 볼수 있는데 실지로는 명사 Ruhe에서 동사 ruhen이 파생되어나왔다. 문장론적인 측면은 여기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

일부 기능동사구들에서는 형식상 동작명사와 전치사사이에 대립이 존재한다. 동작명사가 파생되어나온 동사미정형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전치사 zu가 쓰이고 전이된 의미를 가질 때에는 전치사 in이 쓰이는데 결과 그것들사이의 대립이 생기게 된다.

례: zum Fließen bringen	—	in Fluss bringen
zum Gehen bringen	—	in Gang bringen
zum Brennen bringen	—	in Brand setzen
zum Schwitzen bringen	—	in Schweiß bringen
zum Schwingen bringen	—	in Schwung bringen

기능동사구의 중요한 특징은 명사적성분이 동작명사여야 한다는것이다.

실례로 **zu Papier bringen**(기록하다)은 하나의 문장론적단위이지만 기능동사구는 아니다. 명사 **Papier**는 종이라는 대상을 나타내는 구체명사이기때문에 이 단어결합은 관용구로 보아야 한다.

in Zorn geraten(격분하다)과 **zu Ende bringen**(끝내다)의 경우도 기능동사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추상명사와 구체명사사이 즉 동작명사와 결과명사사이에 련속체가 존재하기때문이다. **Zorn**은 결코 구체명사가 아니며 상태를 표현하는 **Ruhe**와 같은 류형의 동작명사에 속한다.

동작명사에서 《동작》은 《행위》와 같지 않으며 동작명사가 과정과 상태를 나타낼수도 있다는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실례로 **zu Ende bringen**은 **beenden**으로 대체될수 있기때문에 기능동사구에 속한다.

그러나 동작명사가 있다고 하여 다 기능동사구로 되는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동작명사와 결합된 완전동사들도 있기때문이다.

례: **Das Bild kommt zur Versteigerung.**

(그 그림은 경매되었다.)

Der Maler des Bildes kommt zur Versteigerung.

(그 그림의 화가는 경매장으로 왔다.)

우의 두 실례문장들은 다같이 동작명사인 **Versteigerung**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첫번째 실례문장에서는 《경매되다》는 의미를 가진 기능동사구가 쓰이였다면 두번째 실례문장에서는 완전동사와 장소상황어가 쓰이여 《경매장으로 온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있다. 따라서 두번째 실례문장에서 쓰인 동작명사와 완전동사는 기능동사구로 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동사 **kommen**이 쓰이는 구조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kommen-구조에서는 인칭대명사가 주어로 쓰이면 **kommen**은 기능동사가 아니라 완전동사로 된다. 이것을 인칭적《**kommen**-구조》라고 한다.

례: **Der Vorfall führt uns zu einer engeren Vereinigung.**

(=Wir kommen durch den Vorfall zu einer engeren Vereinigung.)

(그 사건으로 하여 우리의 단결은 보다 강화되었다.)

Ich führe etwas zu Ende.

(=Etwas kommt durch mich zu Ende.)

(나는 그 무엇인가를 완성하고있다.)

Ich komme nun sehr rasch zur Schlussfolgerung.

(나는 재빨리 결론을 추리하였다.)

우의 실례의 첫번째 문장에서는 주어가 사물이고 목적어가 사람이다. 반면에 두번째 문장에서는 주어가 사람이고 목적어가 사물이다. 결과 첫번째, 세번째 문장에서는 인칭적 **kommen**-구조가, 두번째 문장에서는 기능동사구가 쓰이였다. 인칭적**kommen**-구조에서는

기능동사구에서보다 구성성분들의 독자성이 강하다.

동작명사로서 미정형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능동사구에서는 미정형이 쓰이지 않는다. 미정형은 능동적인 개념이기때문에 중성을 가지는 동작명사가 쓰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중성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된 추상명사는 문맥의 내적인 주어관계에 따라 능동적인 의미나 피동적인 의미를 가질수 있다. 이러한 동사적인 원인으로 하여 동작명사에서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진 미정형보다 추상명사가 보다 우선시되고있다.

실례로 zum Lachen bringen(웃기다)와 zum Kochen bringen(끓게 하다)에서는 과정이 능동이기때문에 미정형이 가능하다. 그러나 zum Abschluss bringen(종결시키다)와 zur Entscheidung kommen(결정되다)에서는 피동인 abgeschlossen werden과 entschieden werden을 나타내기때문에 미정형이 쓰이지 않고 중성을 띠는 동사적인 추상명사가 쓰였다.

다음으로 기능동사구를 이루는 다른 하나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동사적성분(기능동사)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기능동사구에서 동사적성분은 자기의 의미를 거의나 혹은 완전히 상실하고 문법적기능만을 수행하는 기능동사로서 완전동사와 차이난다.

기능동사와 완전동사는 문맥을 놓고 구별해보아야 한다. 전치사와 결합된 명사는 완전동사와 함께 쓰일 때 부사적규정어로 된다. 부사적규정어는 기능동사구의 명사구와는 달리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때문에 그것이 없어도 된다.

실례로 《Der Maler des Bildes kommt zur Versteigerung.》(그 그림의 화가는 경매장으로 왔다.)에서 zur Versteigerung은 없어도 되기때문에 kommen은 완전동사이다. 이와 같이 명사구의 유무가능성을 따져보고 없어도 되면 그 동사는 완전동사이다.

그러나 명사구를 없앨수 없다고 하여 다 기능동사로 된다고 말할수 없다. 그것은 상황어적인 삽입어나 전치사적인 목적어를 무조건 필요로 하기때문에 기능동사구인가는 문맥을 보고 알수 있다.

례: Die neue Maschine, die man am nächsten Sonntag in Barcelona zum Einsatz bringt, ...

(다음주 일요일에 바르셀로나에서 리용되게 될 새 기계는...)

우의 실례에서 zum Einsatz bringen(리용되다)은 기능동사구이다. 만일 bringen이 완전동사라면 nach Barcelona zum Einsatz bringt은 《바르셀로나로 가져갔다》는 의미로 쓰이게 된다.

기능동사구의 동사적성분인 기능동사는 자기의 고유한 의미를 대부분 상실하였다. 때문에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능동사의 일반화수준은 완전동사보다 높은 단계에 있다고 말할수 있다. 일반화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의미를 보다 많이 상실하게 된다.

문맥이 동사가 가지고있는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는것은 kommen이나 bringen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례1: kommen:

① der Vater kommt:

시공간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시점까지 행동하는 주어의 목적지향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begibt sich her)

② ich kam an einen Brunnen:

시공간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시점까지 행동하는 주어의 움직임을 나타낸다.(=gelangt)

③ er ist unter ein Auto gekommen:

시공간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시점까지의 주어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ist geraten)

④ ein Gewitter kommt:

시공간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시점까지의 움직임을 나타낸다.(=nähert sich)

⑤ in einer halben Stunde kommt Berlin:

시공간적으로 일정한 시점까지의 움직임을 나타낸다.(=wird erreicht)

⑥ Der nächste Winter kommt gewiss:

시간적으로 일정한 시점까지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시간예로의 전이는 고도의 추상화정도를 나타낸다. 시간관계는 모든 언어에서 공간관계를 통해 표현된다.

⑦ wir kommen zum Schluss/zur Abstimmung:

일정한 시점 즉 과정의 시작점으로 되는 주어가 접근하는 시점을 나타낸다.

⑧ Etwas kommt zur Ruhe/zur Sprache:

과정이나 상태의 시작점으로 되는 시점 혹은 시간적인 변화만을 나타낸다.

레2: bringen:

① bringe mir ein Glas Wasser:

한 위치에서 일정한 다른 위치예로의 물체의 이동을 나타낸다.

② jemand an die Bahn bringen:

누구를 어느 한 곳에서 일정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③ das wird dir keinen Dank bringen:

시간적전이를 나타낸다.(부차적으로 사역적의미를 나타냄)

④ a) jemanden ins Grab bringen:

인칭목적어(구체명사)

etwas zu Papier bringen

사물목적어(구체명사)

b) jemanden in Aufregung bringen

인칭목적어(추상명사)

etwas in Bewegung bringen

사물목적어(추상명사)

시간적인 결과가 순수 사역적인것으로 전이된다.

우의 실례에서 제시된 련속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할수도 있다. 그러한 실례로는 kommen이나 bringen에 존재하지도 않는 조동사를 들수 있다. sein과 haben, werden은 의미적으로 관계동사와 매우 밀접하게 결합되어있기때문에 자기가 가지고있는 의미적요소들을 더이상 보존하지 않고 순수 종속의미소로만 쓰이게 된다.

기능동사인 kommen과 bringen은 널리 일반화되어있으나 이 두 동사들간에는 대립관계가 존재한다. 완전동사로 쓰이는 경우 이러한 대립관계는 커지게 되며 기능동사로 쓰

이는 경우에는 없어지게 된다. 실례로 **kommen**과 **gehen**이 완전동사로 쓰일 때에는 의미적대립이 존재하지만 기능동사로 쓰일 때에는 대립이 없어진다.

기능동사에서 있을수 있는 의미적인 대립은 일정한 체계에 국한되어있다.

실례로 기능동사로서 쓰인 **stehen**과 **stellen**에는 대립이 있지만[예: **zur Verfügung stehen**(도울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 **zur Verfügung stellen**(처분에 맡기다)] **stehen**과 **liegen** 또는 **sitzen**과 **setzen**에는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 **in Bewegung setzen**

in Bewegung sitzen

움직이다

기능동사가 자기의 의미를 상실한다는것은 기능동사가 동사에서 파생되어 생겨났으며 그 동사가 가지고있던 고유한 의미와 모순되는 의미를 가진 동작명사와 결합될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실례로 **in Gang setzen**(동작시키다)와 **in Trab setzen**(빨리 달리게 하다)에서 동작명사인 **Gang**과 **Trab**가 파생되었나온 동사들인 **gehen**과 **traben**은 **setzen**과 결합될수 없다.

이처럼 기능동사구의 명사적성분과 기능동사는 기능동사구를 이루는 기본구성요소로 된다.

기능동사구의 명사적성분은 명사화를 통하여 동사에서 파생되었나온 동작명사로서 기능동사구를 구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은 동작명사의 유무관계만을 가지고 기능동사구를 판별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동작명사와 완전명사가 결합되는 경우도 있기때문이다.

동작명사에는 동사의 미정형과 같은 의미를 가진 명사와 전의된 의미를 가짐으로써 미정형과 형태가 다른 추상명사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능동사와 결합하여 기능동사구를 이루면서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서로 다른 전치사를 요구하게 된다.

기능동사구의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인 기능동사는 의미를 거의 혹은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문법적기능만을 수행한다. 다시말하여 기능동사의 의미적일반화수준은 완전동사보다 높은 단계에 있다.

우리는 도이칠란드어기능동사구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화시켜 학생들을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는 인재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할것이다.